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3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HSBC 필리핀 지점: 필리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 — page 1
- IT-BPM 업계, 정부 승인 7억4천만 페소 규모의 역량 강화 계획 하반기 착수 예정 — page 2
- 필리핀 물류 산업, 3개월 만에 11% 성장 — page 2-3
- BIR,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서류 요건 간소화 — page 3-4
- PEZA, 친환경 산업단지 인증 추진... 생태산업단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 목표 — page 4-5
- 마르코스 대통령, 모든 내각 장관들에게 사임 요구 — page 5-6
- 미국 관세 부담 속에서 한국, 정책 지원 강화 약속 — page 6-7

HSBC 필리핀 지점: 필리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 May 20,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HSBC 필리핀은 필리핀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약 5.4%로 발표되어 예상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HSBC의 전체적인 전망은 2025년 연간 성장률이 약 5.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대부분의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라고 프라모스 라젠드란 HSBC 필리핀 국제자산 및 프리미어 부문 대표는 화요일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상그릴라 더 포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라젠드란 대표는 소비와 인구 구조상의 이점을 필리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다.

“전체 GDP의 75%가 소비에서 비롯되며, 이는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에서 오는 혜택입니다. 노동 연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약 25세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전반적인 경제와 노동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 역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HSBC Philippines Head of International Wealth and Premier Pramoth Rajendran (Photo courtesy of HSBC Philippines)

라젠드란 대표는 또한, 중산층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산 및 재산을 25만 달러(USD) 이상 보유한 성인의 수가 203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HSBC는 필리핀 내 자사 성장 전망에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SBC 필리핀의 관점에서 볼 때, 필리핀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기회에 대해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이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합니다. 첫째, 일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GDP 성장률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젠드란 대표는 필리핀은 소비 중심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인구의 약 1.5%가 상당한 수준의 부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층은 변동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과 타깃 고객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0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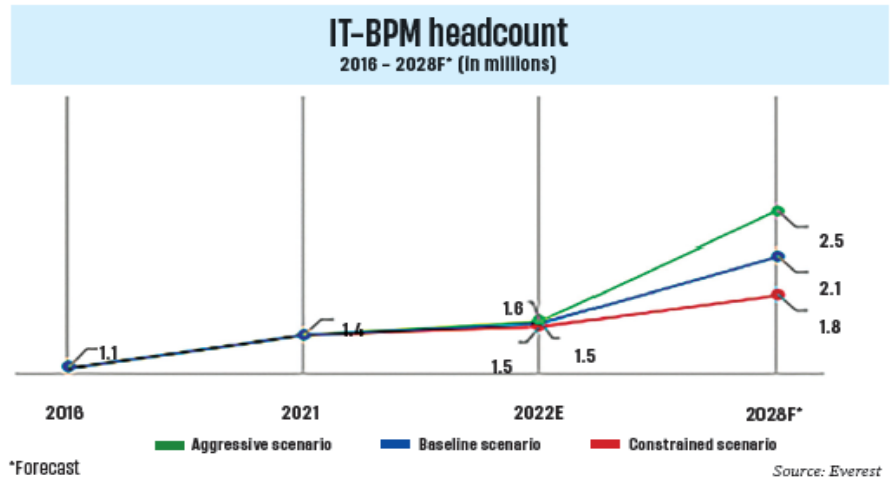
IT-BPM 업계, 정부 승인 7억4천만 페소 규모의 역량 강화 계획 하반기 착수 예정

May 21,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산업의 대규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7억4천만 페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필리핀 IT-BPM 산업협회(IBPAP)가 화요일 밝혔다.

IBPAP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 투자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되며, 훈련생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관련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3년간 34만 명의 장학생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IBPAP는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최근 이사회가 기술교육기술개발청(TESDA) 및 정보통신기술부(DICT) 관계자들과 만나 프로그램 전략을 조율했다고 게시물에서 밝혔습니다.

IBPAP 관계자들은 추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4월 26일 민간부문자문위원회(PSAC)는 제8차 디지털 인프라 부문 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최대 34만 명의 IT-BPM 근로자(취업 대기자 및 대학생 포함)를 위한 역량 강화 예산 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SAC는 성명에서 이 이니셔티브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SAC는 디지털 인프라 부문 책임자이자 MDI 그룹 홀딩스 회장인 마일라 비야누에바의 말을 인용해, 이번 예산 배정이 AI 주도의 글로벌 경제 변혁에 대비해 노동력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4월 30일 발행된 Malaya Business Insight는 IT-BPM 부문이 2025년 40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하고, 향후 12~18개월 내에 정규직 직원 수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IBPAP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해당 부문은 3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2023년 355억 달러보다 7%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2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어 정규직 직원 수가 2023년 170만 명에서 18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it-bpm-to-kickstart-govt-approved-p740m-upskill-plan-in-h2/>

필리핀 물류 산업, 3개월 만에 11% 성장

May 20, 2025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Based on data from the Philippine Ports Authority (PPA), cargo traffic in ports rose by 11 percent to 65.77 million metric tons from January to March, from 59.52 MMT a year ago.

STAR / File

필리핀 물류 산업은 올해 1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외부 리스크를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필리핀항만청(PP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항만의 화물 물동량은 6,577만 메트릭톤(MMT)으로 전년 동기의 5,952만 MMT에서 11% 증가했다.

PPA는 또한 컨테이너 처리량이 180만 TEU(20피트 컨테이너 단위)에서 204만 TEU로 13% 증가했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에 앞서 물류 산업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필리핀을 포함한 수십 개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다. 해당 정책은 4월 9일부터 90일간 유예되었지만, 그 여파로 세계 시장에는 큰 불확실성이 퍼졌다. [Cont. page 3]

필리핀 물류 산업, 3개월 만에 11% 성장

[Cont. from page 2]

이전에 『필리핀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항만청(PPA) 제이 산티아고(Jay Santiago) 청장은, 관세 리스크에 따른 국내 물류 산업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티아고 청장은 PPA 기록을 인용하며, 필리핀은 미국과의 무역을 보통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통한 환적(transshipment)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필리핀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화물 운송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PPA는 올해 1분기 항만 이용 여객 수가 1,842만 명으로 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24년에는 성주간(Holy Week)이 3월에 있었던 반면, 올해는 4월에 해당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롤온·롤오프(RoRo) 선박을 이용한 여객 수도 260만 명으로 7%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동안 크루즈선 기항은 총 52척에 달해, 필리핀이 고급 여행객들의 인기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루즈 여행객은 총 131,68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PPA는 올해 목표인 185,000명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PPA는 수익 증가와 지출 절감 덕분에 3월 기준 순이익이 38억8천만 페소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익은 71억2천만 페소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지출은 32억4천만 페소로 19% 감소했다.

정부는 PPA를 국영기관 중 가장 높은 배당금을 납부하는 기관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PPA는 2024년에 사상 최대인 52억 페소를 납부했다.

이와 더불어, PPA는 화물 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섬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시설 개선에도 수익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20/2444290/philippines-logistics-industry-grows-11-3-months>

BIR,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서류 요건 간소화

May 22, 2025 | ARAI | BusinessWorld

국세청(BIR)은 수요일,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BIR은 정부의 임법 및 행정부와 함께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VAT 및 기타 세금 환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요건을 개선하고 단순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로메오 D. 루마귀 주니어(Romeo D. Lumagui, Jr.) 국세청장은 성명을 통해 말했다.

BIR은 지난 4월 10일, VAT 환급 절차의 간소화를 명시한 **국세청 회람 제37-2025호(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 37-2025)**를 발표했다. 이 회람은 **공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CREATE MORE 법, 공화국법 제12066호)**에 따른 것이다.

BIR은 “VAT 환급 청구 시 (과세 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본 대신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송장 또는 영수증의 공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것” 이라고 밝혔다.

송장 또는 영수증의 사본은 해당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자의 공인된 임직원이 인증해야 한다.

또한 BIR은 VAT 환급에 필요한 세 가지 서류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산업통상부(DTI) 등록 증명서, 수입신고서 및 국세 신고서/비공식 수입 신고서 또는 단일 행정문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사본이다.

자본재의 분할 공제(input tax amortization)에 관한 분기별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공인 사본 대신 세관 수입 회계과(Bureau of Customs Revenue Accounting Division)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인증서 원본은 이전 환급 청구 절차 시 이미 제출되었어야 한다.

[Cont. page 4]



PHILIPPINE STAR/EDD GUMBAN

BIR,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서류 요건 간소화

[Cont. from page 3]

BIR 고시는 수출 지향 기업의 VAT 환급 청구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청구 건 또는 CREATE MORE 법안 발효 이후 청구 건에 대해서는, BIR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마케팅국(Export Marketing Bureau, EMB)이 발행한 인증서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수출 판매를 검증할 예정이다.

BIR은 이를 통해 정부 기관 간의 중복 검증 작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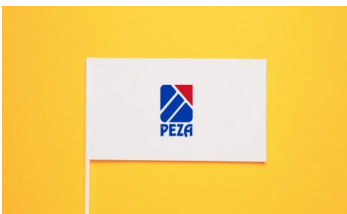
“따라서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는 EMB의 심사와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제출되므로, 서류 제출 요건에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BIR은 설명했다.

CREATE MORE 법안에 따르면, 수출 지향 기업의 등록된 활동에 ‘직접 귀속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적용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1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5/22/674003/bir-simplifies-documentary-reqts-for-vat-refund/>

PEZA, 친환경 산업단지 인증 추진... 생태산업단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 목표

May 21,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국제금융공사-세계은행(IFC-WB)의 친환경 산업단지 인증(Eco-Industrial Park Certification)을 획득하기 위해 자사의 경제구역을 지속 가능성의 “글로벌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PEZA는 이 친환경 산업단지 인증 프로그램이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될 글로벌 자발적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제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국가의 개발자와 운영자의 참여를 통해 산업단지, 자유무역항, 경제구역에서 지속 가능성 기준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PEZA는 밝혔습니다.

PEZA는 IFC-WB 친환경 산업단지(EIP) 인증 절차에 참여할 파일럿 에코존으로 리마 테크놀로지 센터, 퍼스트 필리피노 인더스트리얼 파크, 라구나 테크노파크, 라이트 인더스트리 및 사이언스 파크, 카멜레이 인더스트리얼 파크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들 구역은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는 시험장이 되어, 경제구역의 EIP 인증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투자진흥청은 설명했습니다.

PEZA는 IFC-WB가 이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력 하에 IFC-WB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경제구역 분야에서 채택한 EIP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하고, 필리핀에서 EIP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것.

또한 IFC-WB는 ‘자격 있는’ 필리핀 경제구역에서 EIP 프레임워크 채택이 미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잠재 영향에 대한 시장 평가를 실시하며, 구역 운영자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는 필리핀에서의 EIP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로드맵 초안 작성과 필요한 인증 요건 요약도 포함됩니다.

PEZA에 따르면, IFC-WB는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EIP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PEZA가 EIP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진흥청은 “PEZA가 관리하는 427개 경제구역과 필리핀 자유무역항이 EIP 프레임워크와 친환경 성장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5]

PEZA, 친환경 산업단지 인증 추진... 생태산업단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 목표

[Cont. from page 4]

“우리 에코존은 단순히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한 적합한 입지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조성, 기후 회복력, 친환경 인프라,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윤리적 우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PEZA는 수요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입주기업들이 EIP 인증,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탈탄소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PEZA의 에코존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그리고 EID 프레임워크를 촉진하는 우리의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PEZA는 덧붙였습니다.

투자진흥청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에게 필리핀을 선호하는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은 PEZA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국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연간 상품 및 서비스 총수출의 약 60%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투자진흥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이 PEZA뿐 아니라 “소중한” 에코존 입주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수자원, 보건, 토지 이용 및 주거지, 생계 및 산업 등 중요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발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위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에코존을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라고 PEZA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21/peza-to-position-its-ecozones-as-global-benchmarks-of-sustainability-in-pursuit-of-eco-industrial-park-certification/>

마르코스 대통령, 모든 내각 장관들에게 사임 요구

May 22, 2025 | Argyll Cyrus Geducos | Manila Bulletin

MANILA BULLETIN

한눈에 보기

- 말라카냥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각 부서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행정부가 새롭게 조정된 우선순위에 맞춰 계속 근무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우 차원의 사임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후, 마르코스 대통령은 모든 내각 장관들에게 사임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들이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는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Malacañang photo)

대통령은 “정부를 국민의 기대에 맞춰 다시 조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소처럼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냈고, 그들은 정치도 변명도 아닌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말라카냥궁은 성명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예우 차원의 사임 요청은 각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조정된 행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 일할 사람을 결정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조율, 그리고 긴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주할 여유는 없습니다. 안락 지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말라카냥궁은 이번 조치가 초기 정부 운영 단계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명확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7]

마르코스 대통령, 모든 내각 장관들에게 사임 요구

[Cont. from page 5]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했지만, 국가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새롭게 조정하고 더 빠른 실행과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말라카냥궁은 이번 전환기에도 정부 서비스가 중단 없이 계속 제공될 것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켰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리더십 팀 구성에 있어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실력주의가 기준이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한 리셋을 통해 마르코스 행정부는 더 날카롭고, 빠르며, 국민의 가장 시급한 요구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5월 19일 공개된 대통령의 첫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내각 전반에 걸친 성과 평가가 진행 중이며, 추가 인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That could happen)”라고 향후 고위 인사 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과 검토 중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There's an ongoing performance review. That's my warning to them)”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 검토가 특히 효율적이고 부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말 부족하거나 부패한 사람이 있고, 그 죄가 너무 무거우면, 우리는 고발할 것입니다 (If someone is really falling short or corrupt, and the offense is serious, we'll file charges)”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관측통들이 행정부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 많은 공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Source: https://mb.com.ph/2025/05/22/marcos-asks-all-cabinet-secretaries-to-resign](https://mb.com.ph/2025/05/22/marcos-asks-all-cabinet-secretaries-to-resign)

미국 관세 부담 속에서 한국, 정책 지원 강화 약속

May 22, 2025 | Reuters | Inquirer.net

서울—수요일, 한국은 바이오의약품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가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발표한 이후, 서울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중소 수출업체들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턴’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분야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효과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약 공장의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자국 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완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약 수입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한국의 전략 산업 중 하나인 의약품 수출은 2024년 기준 9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16%는 미국으로 수출되어, 미국이 최대 시장임을 나타낸다. [Cont. page 7]



Flags of South Korea | INQ STOCK PHOTO

미국 관세 부담 속에서 한국, 정책 지원 강화 약속*[Cont. from page 6]*

한국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지난주 미국 내 위탁생산(CMO) 사업 결정 시점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자사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회장은 “미국 진출이 정답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며, 전체 매출의 약 30%를 벌어들이고 있는 미국 시장의 높은 비용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들은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인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시설을 정기 점검 차 방문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점검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공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요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5% 이상 상승하며 코스피(KOSPI) 지수의 1.1% 상승을 전인했고, 셀트리온 주가는 0.5% 상승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6553/south-korea-vows-more-policy-support-as-us-tariffs-weigh>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